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아피
찾풍 위라세타군 '찬란함의
무덤', 브렛 베일리 '맥베스',
중국국립극원 '홍등기', 마
크테 '발링화담'.

나빌레라



노은영 '겨울의 나무'.

조선대 대학원 서양화 과제전

7월 3일까지 조선대미술관

'얇은 사 하이안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조선대미술관에서 오는 7월3일까지 조선대 대학원 미술학과 서양화 과제전이 열린다. '나빌레라'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새로운 창작의 세계를 향해 나비처럼 날갯짓을 펴는 청년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전시에 참여하는 작가는 김엽·김성결·김하경·나수빈·노은영·서현호·양호열·오관영·전혜금·정마음씨 등 10명이다. 오관영은 수채화 작업으로 '나무'를 재해석했다. 작품 '겨울

나무'는 물감과 물이 만나 만들어내는 번짐으로 표현된 겨울의 정취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특히 붉으면서도 어둡게 처리된 배경과 앙상하게 가지만 남은 채 쓸쓸하게 서 있는 나무의 대비가 인상적이다.
김성결의 작품은 색과 면, 단순한 선의 조화, 간결한 표현이 만들어 내는 조화가 관람객의 시선을 잡아끈다. 작가는 '신사', '모자', '타이'를 통해 화려하게 꾸며진 신사의 모습을 역설적으로 표현한다.
노은영의 작품에서는 도심 거리의 적막함이 느껴진다. 뾰족한 건물, 소음에 묻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만 같다. 문의 062-230-7832.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문화전당 아시아예술극장 개관 페스티벌 공연작 33편 확정 9월 4~21일

29일 공식 발표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예술극장 개관 페스티벌 작품은 '아시아 동시대 예술'에 주목한다. 아시아 국가는 물론이고 러시아, 프랑스, 아르헨티나 등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들도 대거 참여, 다양한 시선의 작품을 선보인다. 국내 작가로는 이이남씨 등 3명이 선정됐다. 공연 공간은 아시아예술극장의 2개 공연장과 로비, 리허설 스튜디오 등 극장 공간과 함께 광주여고 체육관, 광주극장, 빛고을시민문화관, CGI센터 등으로 확장됐다.
9월 4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계속되는 개관 페스티벌 공연작은 모두 33편으로 연극, 무용, 설치, 영상, 미디어 아트,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른다. 서로 다른 장르간 결합과 각국 작가들의 협업도 눈에 띈다.
페스티벌 라인업 가운데는 아시아예술극장의 기본 컨셉상 관객들이 접해보지 못한 실험적인 작품과 묵직한 주제의 공연이 많아 광주 시민들과 어떻게 소통할 지 주목된다. 예술극장측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민들레 대상으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예술극장이 지향하는 '동시대 예술'과 관객과의 거리를 좁히려 노력해왔다. "새롭고 신선하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여전히 "어렵고 난해하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은 상태다. 구체적인 상연작을 소개한다.

세계적 영화 감독 아피차퐁 위라세타군이 만든 첫 공연 작품 '열병의 방'은 관객들의 기대가 가장 높은 프로젝트 중 하나로 동굴을 통해 영화와 연극의 근원을 재구성한 작품이다. 또 구전동화와 기억 속에서 출몰하는 호랑이의 발자취들을 모티브로 한 싱가포르 호추니엔의 시각 연극 '만 마리의 호랑이'도 눈길을 끈다.
필리핀 마르코스 독재 체제하의 실존인물 페드로 동굴을 모티브로 영웅이 제노되고 정치화되는 과정에 질문을 던지는 연극·영상 작품 '그의 죽음은 의문스럽다'도 흥미롭다.



29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에서 열린 개관 페스티벌 작품 발표 기자회견.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영화와 설치 미술의 경계를 허물며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대만 감독 차이밍량은 3개의 작품을 선보인다. 당나라 승려 현장의 행보를 좇는 연극 '당나라 승려'는 인생의 덧없음을 함축하는 협소한 무대 공간에서 차이밍량 감독의 '페르소나'인 배우 이강생이 연기한다. 또 참여형 영상 설치 작품인 '떠돌이 개 in 광주', '차이밍량의 영화관'을 선보인다.
팀 에첼스의 연극 '밤이 낮이 된다는 것'은 어린 아이들이 어른들로부터 어떤 압력을 받으며 성장할까 고민해 보는 작품이다. 광주의 8~14세 퍼포머 16명이 함께 참여한다.
또 아르헨티나의 리카르도 바르티스의 '바보 기계'는 폐쇄를 앞둔 광주여고 체육

관에서 한 편의 연극적 게임을 선보이는 작품이며 로메오 카스텔루치의 '봄의 제전'은 스트라빈스키의 동명의 곡을 과격적으로 재해석한 음악을 바탕 삼아 75마리 분쇄된 소의 뼈가루를 활용, 인간 문명의 잔혹함을 비판하는 시각·무용 작품이다.
그밖에 문화혁명 시기인 1969년 강정 예술감독 체제에서 만들어진 작품으로 문화혁명의 아이콘을 통해 이념과 예술에 대한 문제를 던지는 중국국립극원의 '홍등기', 전장으로 피폐해진 사회의 부패, 잔혹성과 탐욕을 그린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렛 베일리의 오페라 '맥베스', 인도의 '피나 바우쉬'로 불리는 찬드랄레카의 '신체' 등이 공연된다.

지역 출신 작가로는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씨가 서울에서 활동하는 서현석과 함께 미디어와 연극이 결합된 '이이남 : 세컨드 에디션'을 선보인다.
한편 올해 공모를 통해 선정한 광주·전남북 지역 작가의 4개 작품은 9월17일 커뮤니티 원도우 프로젝트를 통해 소개되는 형식으로 소개될 예정이다.
예술극장 홈페이지(www.asianart-theatre.org)에서 자세한 작품 정보를 알 수 있으며 티켓 구매도 가능하다. 7월 1일부터 14일까지 광주 시민을 대상으로 모든 작품을 5000원에 관람할 수 있는 할인 티켓을 판매한다. 티켓 가격 무료~5만원. 문의 062-410-3617. /김미은기자 mekim@

■ 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개관 페스티벌 작품

국가	작가	작품	일정	국가	작가	작품	일정
한국	김지선	다음 신의 클라이막스	9.9-10	태국	아피차퐁 위라세타군	찬란함의 무덤	9.7-9
한국	김성환 등	피나는 노력으로 한	9.12-13	태국	아라야 라스잠리안숙	움마유 시	9.5-8
한국	이이남, 서현석	이이남 : 세컨드 에디션	9.16-17	싱가포르	호추니엔	만 마리의 호랑이	9.19-20
한국일본	사카구치 교헤	제로 리 : 퍼블릭	9.4-21	필리핀	라이 마틴	그의 죽음은 의문스럽다	9.12-13
프랑스	클로드 레지	내면	9.18-20	말레이시아	마크 테	발링화담	9.5, 7-8
한국일본	오카다 토시키	야구에 축복을	9.19-20	마카오	프레타이스	상아와 살에 관하여	9.6-7
	중국국립극원	홍등기	9.11-12	이란	암바스 키아로스타미	관람자들을 바라보기	9.18-20
중국	자오량	자오량 프로젝트 (설치) 동풍과 서풍 (영상) 베헤모스 / 고소	9.11-17 9.10-13	이란	아자데사미리	다마스쿠스	9.13-14
				인도	찬드랄레카	신체	9.8-9
				우즈베크	탈가트 바탈로프	우즈베크	9.16-17
대만	차이밍량	당나라 승려 차이밍량의 영화관 떠돌이 개 in 광주	9.4-6 9.11-13 9.5-8	러시아	콘스탄틴 보고몰로프	이상적인 남편	9.18-19
	수웬치	지도 바깥	9.13-14	이집트	와엘 사키	카바레 십자군	9.18-20
	카와구치 타카오	오노 카즈오에 대하여	9.7-8	남아공	브렛 베일리	B 전시	9.11-13
일본	아미타타 칸	대행진	9.11-12	아르헨티나	리카르도 바르티스	바보기계	9.4-7
	아다치 마사오	단식광대	9.11-12	영국	팀 에첼스	밤이 낮이 된다는 것	9.19-20
				이탈리아	로메오 카스텔루치	봄의 제전	9.5-7

www.doidam.net

펜션매각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아름다운 펜션(성업중)

건평 1093㎡(330평) 대지(잡종지) 17680㎡(5350평)

- 1 문평 IC에서 5분거리
- 2 2차선 도로변 남향 접근성 양호
- 3 연수원, 기도원, 요양원, 요양병원등 적합

광주공인중개사
임야 상가 전문

정주경 010-6460-2834

호남유일 이태리가구 직수입 전문점, 2년만의 **빅세일** 7월 25일까지

이태리가구 SALE

www.hong79.com ☎1899-0240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58-15 **홍스케이스** 가구빌딩 SINCE 1990